

건강 칼럼

정신분석에서 신경증으로 인한 통증

몸에 이상이 생겨도 통증이 없다면 어떨까?

아마 통증이 없으면 몸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몸의 특정부위에 통증이 온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모든 관심이 통증에 집중이 되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된다.

통증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먼저 통증에는 원인이 확실한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먼저 외부의 타박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통증은 당연히 외상성 통증이다. 또 오장육부의 이상으로 인하여 오는 통증도 있다. 이러한 통증들은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인만 제거가 된다면 치료가 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원인모를 통증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 본다. X-ray, CT, MRI, 혈액검사 등 각종 이상한 검사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병이란 말인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관계도 없이 통증을 호소한다면 정신분석적인 면을 알아보아야 한다.

정신분석에서의 신경증으로 인한 통증의 특징은 물리적인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프로이트의 신경증에 대한 사례 중의 하나인 엘리자베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프로이트에게 왔을 때 양다리의 통증과 발이 찬 증세 등을 호소하였다. 프로이트가 환자와의 자유연상을 통하여 상담을 한 결과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 통증이 다르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낀다. 또 죽은 언니의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왼쪽다리의 통증이 심해졌다.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연상하자 발의 찬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을 호소하였다.

왜 아버지, 언니의 이야기가 나오면 통증이 나오는 것일까?

여기서 아버지와 관련된 통증과 발의 냉증은 아버지의 다리에 봉대를 감아주기 위하여 다리를 올려놓고 하던 부위이며, 아버지가 부를 때에 맨발로 찬 방바닥을 뛰어다니

경험과 관련이 있다. 오른다리의 통증은 죽은 언니가 병들어 있을 때에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형부와 산보를 하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왜 통증으로 전환이 된 것일까?

이것은 형부의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문제가 된다. 형부나 아버지와는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이 억압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죄의식으로 작용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무의식에서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의식에서는 이러한 욕망을 억눌러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욕망을 표출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사회적인 여건상에 억눌려서 잠재의식 속에 억압이 된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잠재의식적인 억압

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현 듯 아버지에 대한 생각, 죽은 언니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는 갑자기 다리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 본인은 이러한 것이 왜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왜 통증이 오는지, 언니를 생각하는데 왜 통증이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그 당시에 화나고 분노하며 하던 기억들은 기억에서 억눌려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나 언니에 대한 기억을 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통증이 나타나며 왜 나타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다.

우리주위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 큰 충격을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거나 정신적 충격이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 순간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와 관련된 생각이나 그림, 사진 등을 본다면 무의식적으로 관련된 부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잠재의식적인 기억이 완전히 무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평생 화병등과 같이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고 마음과 정신을 안정하고 무의식적인 안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범
우리한의원장

독자제언

농촌 빈집털이 예방은 이렇게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한창 바쁜 요즘 농촌지역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빈집털이·농산물 절도,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문단속은 절도범의 범행시간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심적부담을 가지게 해 범행의사를 포기하게 할 수 있으므로 문단속은 철저히 해야겠다.

둘째, 출타시 마을이장, 이웃주민과 서로 집을 바꾸는 공동 감시환경을 만들어서 절도범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셋째, 동네에 낯선 차량, 오토바이 등을 발견 시 차량번호와 특징을 적어 두고, 이장이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습관을 갖어야겠다.

넷째,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아선 절대 안 된다. 연료하선 어르신께

서 비밀번호를 기억 못하신다는 이유로 간혹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오래 집을 비울 때는 꼭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예약순찰제'를 신청한다. 관할 파출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간단히 주소와 연락처만 알려주면 되니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정성들여 수확한 농산물과 이를 팔아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 당한 농민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 예시된 예방법만이라도 꼭 실천하길 바라며, 경찰과 시민들이 힘을 합하여 농촌지역 절도 예방에 힘쓰자.

김윤철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준강간은 엄연한 성범죄

흔히들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는 준강간이 그것이다. 가령 자고 있거나 주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상대와 간음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준강간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대개 상대가 반항하지 않아 목시적 합의가 이뤄졌기에 강간범으로 불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주장일 뿐 간음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죄가 성립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따라서 술자리를 함께한 상대가 과음으로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목시적 합의를 했다고 착각해 준강간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준강간은 엄연히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가해자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주취 상태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그 누구도 준강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순간의 욕정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면 평생 후회해도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소외된 발전 현안에도 주목해야

전북도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소외된 현안에도 주목해야겠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미리 논리 강화 작업에 들어가야한다는 주문이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오래도록 소외된 채로 있는 데 이것은 도민들이 버리는 바가 전혀 아니다.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건의 해보고 안 되면 뒤로 물러나기 과연 몇 번이었는가. 지난 날 여러 번 주문했던 것을 여기 또 반복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낼 때이다. 무슨 현안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역 발전이 이끌어주리라는 새만금 사업과 탄소산업과 식품 클러스터 사업들을 보아도 그렇다. 전북도가 수년 전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미덥지 않다. 정부가 후속책을 내놓으며 잔결음을 보일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다 덕담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지역 민심무

마용 언론 플레이 정도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 턱없이 못미치지 않는 말이다.

전북도는 소외된 발전 현안 사업에도 힘을 쏟아야겠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를 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를 보여줘야 한다. 지역 발전의 주목적은 지역 경제와 살림살이의 발전이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평가를 보여줘야 한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큰 데 매번 그에 못 미치니 유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산증액을 위해 크할 것은 미리 체크 해둬야 한다. 그동안 소외된 발전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안사업소의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전북도의 책임은 막중하다. 전북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국책 사업 그에 못지 않게 소외된 현안사업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끈덕지게 실무직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저출산 문제, 빨리 대책 세워야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를 방관하고 있으니 유감이다. 그동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다 평범한 발언이었지않다. 최근에 새로 나온 기사를 보니 어이가 없다.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고민한 흔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 심각한 고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평생 화병등과 같이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고 마음과 정신을 안정하고 무의식적인 안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근거가 없지 않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배우아겠다. 출산 문제가 이쪽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시도들도 5개년 출산 정책이며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기존 대책 그대로 소극적으로 나 오고 있어서 비교가 된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오늘이다. 아이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전북도는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전북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200만 도민을 문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86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팩트이다. 출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고령화로 하향 고착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게 오래됐는데 뾰족한 대책 마련이 없이 난상토론만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예전에도 지적했었거니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0% 수준인데 신생아 울음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다는 소식이다. 저출산 문제는 전북도가 속히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